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0명 배치

##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

고성군이 지난 21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갖고 총 130명을 각 사업장에 배치했다. 군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로 연결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9억4천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이 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인적역량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고성군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선정했다. 이어 3월 10일 사업참

여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본청에서는 지역주도형과 안정적·시장형 등 2개 부문의 사업에 49명이 참가한다. 지역주도형 사업은 국도변 금강금계화길조성, 녹차재배단지 관리, 오토캠핑장 환경정비 등 8개 사업이다. 안정적·시장형 사업은 담쟁이

양묘장 운영, 관광지 환경정비, 생태교란종 모니터링 등 5개 사업이다. 읍면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인 비위생매립장 리사이클(Recycle)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는 70명이 참여한다. 또 고성갈래길 개척사업에는 11명이 참여한다.

군은 사업장 투입에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지역내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 “안전사고 예방은 점검이 최고”

### 고성군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

고성군은 17일부터 31일까지 점포가 밀집돼 화재발생요인이 높고 재난 예방체계의 미흡 등 자체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대해 가스·전기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충전소 2개소, 집단공급시설 5개소, LP가스사용시설 11개소, 어린이집 14개소, 전통시장 2개소 등 총 34개소다.

가스시설은 적치물 보관 여부, 노출배관 및 부속물 유지관리 상태, 중간밸브 적정설치 여부, 가스누출 경보기와 자동차 단장기 적정설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 정상작동 및 외형훼손 여부, 인입구 배선 시공 및 유지관리 여부, 보행로 전선노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방시설은 수신반 상태확인,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상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주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시설개선 보완조치를 명한 뒤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최광호 기자

## 군부대에 산불진화장비 지원

### 등짐펌프·불갈퀴 등 ... 22사단·8군단·해군합작소

고성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군부대에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 21일 22사단 및 예하부대에 산불 초동진화 장비인 등짐펌프와 불갈퀴를 전달한데 이어 22일에는 8군단과 해군합작소에 장비를 전달했다.

등짐펌프와 불갈퀴는 산불발생 초동진화 및 잔불정리에 중요한 장비로 고성군과 군부대는 인적·물적교류 등 유기적 협력속에 산불의 초동진화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군부대에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 급 구

## 주방아주머니·씨빙(여)

### 주방아주머니(타임제 근무, 3명)

□오전 6시~오후 2시

□오전 8시~오후 4시

□오후 3시~오후 10시

### 씨빙(1명)

□오전 9시30분~오후 9시30분

● 이력서 제출 ● 급여 상담 후 결정

# 이모순두부

속초시 노학동 ☎011-9791-5500

## 신재생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협약체결

### 고성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과 지난 25일 ... 경제성장·환경발전 도모

고성군은 지난 25일 한반도 접경지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 한스자이델재단과 제3기 신재생에너지분야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사업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체결은 오전 10시30분 군수 집무실에서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대표 베른하르트 켈러 박사과 김영수 사무국장, 황종국 고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3기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금년도 상반기중 독일연방정부가 '바이오에너지 산업육성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바이오리이트군을 방문, 현지견학 및 자료수집을 통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역계획 및 환경관리분야 독일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한스자이델과 고성군의 협력파트너 협약체결 7주년 기념식수, 크리스마스트리 점등행사인 X-mas 이벤트행사, 경동대 의료분야 특화사업 협력, DMZ박물관 내 동서독 유물전시 등이 있다.

고성군과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의 협력은 지난 2005년 6월 21일 한반도 접경지역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독일 통일 전후 환경적·경제적 측면 사례연구와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그 시초다.

이후 2007년 12월까지 제1기 한반도 민통선 프로젝트 추진과 2008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2기 접경지 생태탐

방로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독일의 환경전문가와 공무원, 교수 초청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해 독일의 사례가 한국에 적용되도록 했다. 이후 고성군은 접경지역 평화·생태 및 DMZ 자연자원 보전 관리에 관한 포럼 및 심포지엄을 개최, 접경 지역의 환경·경제적 가치를 제고시켰다.

군 관계자는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독일 한스자이델과의 협력교류사업은 생태환경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학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등 긍정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며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